

남난희

허허로운 욕망, 사에 스며들며 비웠습니다



《낮은 산이 낮다》 낸 전 산악인 남난희

정량의 음식을 섭취하면 몸이 편해지고, 심중에 남은 욕심을 버리면 마음이 가벼워진다. 허허로운 욕망을 모두 떨쳐낸 이의 심정. 한때 한국을 대표하는 여성산악인으로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남난희(48) 씨는 이 기분을 '물기가 다 빠진 풀처럼 가벼운 마음'이라 고백한다. 젊은 시절 눈에 불을 켜고 숨가쁘게 산을 올랐던 '산악인 남난희'를 상상하며 《낮은 산이 낮다》를 펼친다면 크게 놀랄 터. 시종일관 담담한 어투로 그동안 이야기를 풀어놓은 남씨는 이미 심중의 거품이나 욕심을 모두 버렸다.

“10년 전 산을 재압해 보겠다는 마음을 버리고 자연으로 돌아왔습니다. 청학동에서 6년, 강원도 정선에서 2년, 지금은 지리산 화개골에서 1년 4개월째를 보내고 있지요. 물론 아들 기범이와 산행도 하죠. 그러나 예전의 재 모습은 아닙니다. 정상까지 오를 때도 있지만 중간에서 내

려올 때도 있거든요.”

쌍계초등학교 4학년 기범이는 인간에게 산이란 오름의 대상이 아니라 스며들고 동화(同化)될 대상임을 알고 있다. 남씨는 쉴 틈 없이 산과 덕담을 주고받는 동심 앞에서 더 빨리, 더 힘든 곳을 향하던 우매했던 자신을 반성한다. 산녀, 산악녀, 산처녀 등 별칭도 많았던 한때엔 백두대간 단독종주를 하였고, 1986년에는 여성으로선 세계 최초로 히말라야 강가 푸르나에 올랐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건 대장 노릇을 해야 직성이 풀렸고 남보다 뒤쳐지는 것은 싫었다. 20대 초반에는 이유 없이 죽고 싶다는 괴상한 마음까

지 더해져 등산에 대한 욕망이 용광로처럼 타올랐다. 그때 몸을 달궂놓은 열을 식혀주고, 마음의 거품을 거뭇내 주었던 것은 결혼과 출산이었다.

“2년 만에 과경을 맞았지만 스님이 된 남편과 왕래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전 마음에 여러 사람을 담을 순 있어도 한 사람을 품을 가슴은 없었던 사람이었나 봐요. 결혼을 안했다면 여전히 서울에서 이등바등 생활하면서 산에 오를 것만 꿈꿨을 텐데 결혼이 계기가 돼 산에서 내려왔고 한 생명도 키울 수 있었지요. 요즘은 아이를 낳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많은데 자연인으로서 완성된 삶을 살려면 꼭 아이를 키워봐야 한다고 말해 주고 싶습니다.”

《낮은 산이 낫다》는 이렇듯 등산登山을 잃고 입산入山의 즐거움을 얻은 남씨가 평온한 눈으로 바라본 자연과 생명에 대한 찬사로 가득 차 있다. 10여 년의 일들을 적기까지 우여곡절도 많았다. 본래 시인을 꿈꿔왔고 글을 즐겨 읽었던 터라 향시 뭔가를 끄적거리는 걸 즐겼는데, 정선자연학교가 태풍 루사에 떠내려가면서 그동안 적어놓았던 글은 모두 사라졌다. 할 수 없이 그때를 회상하며 다시 펜을 들고 지리산 화개골에 집을 마련하기까지의 일들을 책에 담았다. 책에는 승부욕으로 가득 찬 산악인 남난희는 없다. 대신 차와 발효식품을 만들며 사는 지리산 자연인 남난희가 얼굴을 내민다. 헬렌 니어링이 소박한 밥상을 말하듯, 마음과 몸을 비우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전하려는 표정이다.

“사람도 산새를 닮거든요. 가령 강원도의 산은 가파르고 무서워 등산하기 좋은 산이구요. 지리산은 사람 마음을 푸근하게 감싸주니 사람이 살기 좋은 곳입니다. 항상 제가 뭔가를 찾았다기보단 그 뭔가가 절 기다리고 있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 살고 있는 집도 절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사는 즐거움이란 손수 만든 된장을 발라 먹고 사는 즐거움이지요.”

남씨는 자연에 묻혀 살면서 어떻게든 자연에 해는 끼치지 않아야 한다는 뜻으로 지금 살고 있는 집을 거의 수리하지 않았다. 작은 돌 하나, 작은 풀 하나라도 생긴 그 상태 자체로 쓰임새가 있다는 걸 어느새 깨달았기 때문이다. 또한 매끼 부담스런 식사는 하지 않는다. 고추와 된장, 상추, 토마토 등 무공해 식품으로 몸의 욕심을 비웠다면 이제 마음을 비울 차례다. 문명에 길들여진 사람들은 번거롭고 바쁘게 사는 게 몸에 배 있으나, 가능한 한 일을 줄여 꼭 해야 할 일만 하는 태도도 필요하다는 게 남씨의 생각이다. 그럴 때 비로소 더 이상의 것에 욕심내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남씨가 가장 바쁜 때는 된장을 만들 때와 4월 중순부터 5월 중순까지 차나무에서 차잎을 따고 뒤고 비빔 후 말려야 하는 때다. 발효식품과 차를 만들어 생계를 유지하기 때문인데 더도 덜도 없이 열 가마니 콩만 받아 매주를 쏜다. 자신의 정성이 닿을 수 있는 때까지 최선을 다해 만들어보자는 뜻이다. “맛있으니 더 만들어라, 기쁨이도 곧 중학생이 될텐데 더 만들어서 돈도 많이 벌어야 하지 않느냐”는 이야기가 들려와도 소용없다. 산에 올라가 빨강곰 나무를 해오고, 집 앞에 심어놓은 농삿거리까지 돌보면 남씨의 일뫼는 거기까지다. 그 이외의 시간은 모두 즐겁고 편하게 놀며 보낸다.

“저희 집엔 텔레비전이 없습니다. 텔레비전이 없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입방야에 오르내리는 정치인들 안 봐서 좋고, 조류독감이니 뭉니 흉한 뉴스 안 들어서 다행이지요. 뉴스나 정보도 필요하죠. 큰 뉴스거리가 생기면 사람들이 전화로 연락을 해줘 언젠간

들게 되니 괜찮습니다.”

산악인으로 지내며 너무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던 탓에 이제 산과 관련해 찾아오는 사람들은 불편하게 느껴진다. 호젓한 한가로움을 즐기며 자연과 대화하는 게 가장 큰 행복이다. 남씨는 ‘작게, 약간 멍청하게, 느리게 사는’ 자신의 삶이 담긴 이 책이 분명 도시생활에 익숙한 사람들에게겐 먼 나라, 낯선 사람의 얘기처럼 들릴지 모른다 말한다. 물론 강요하는 것은 아니다. 웰빙이니, 삶의 질이니 하는 것들의 외중에 진정한 행복은 모든 것을 ‘비움’에 있다는 사실도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제 마음이 소박하고 간결해졌으니 제 삶을 담은 책도 이제 활활 타는 열정보단 ‘비움’에 가깝지요. 촌 아줌마의 신변잡기 같지만 한때 바쁘게만 살아왔던 제가 왜 소박함을 좇게 됐는지를 차분히 들어주시면 감사하지요. 기쁨이는 등교 전에 저와 함께 썩게사에 가서 108배 절을 합니다. 책이 나온 날은 부처님께 제 글을 읽은 분들이 조금이나마 행복의 의미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고 기도드렸지요.”

산악인에서 천연 자연인의 얼굴을 갖게 된 남난희 씨의 집은 양지바른 남향에다, 오래전에 지어진 뿔마루, 담처럼 둘러쳐진 차나무로 둘러싸여 있다. 우물과 바위동굴까지 있어 여름엔 시원하게 등목도 할 수 있는 아담한 집이다. 귀한 연으로 만난 집이기에 남씨는 이곳에 자리잡기까지의 이야기들을 틈틈히 기록하고 있다. 언제라고 단정할 순 없다. 남씨는 무한질주의 시대에 시계와 달력이 없는 집에서 생활하며 느낀 바를 훗날 또 한 권의 책으로 남기고 싶다고 했다. **출판**

취재 김청연 기자·사진 박신우 기자



《낮은 산이 낫다》 남난희 지음 | 학교재 | 256쪽 | 값 9,800원